

제429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 6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2월4일(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12668)
2. 2025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9544)
3.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12669)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12668)
..... 2
2. 2025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9544)
..... 2
3.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12669)
..... 2

(14시29분 개의)

○소위원장 정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6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등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배석자가 발언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을 하기 전에도, 오늘 회의를 소집하는 일련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정부 측이 급한 그런 상황임을 뒤늦게 알려 주셔 가지고 기재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또 우리 국회의 여러 가지 예산과 보증동의안 심사에 대한 권한 존중에 대해서도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정부 측에서 차관님이 그 설명과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재부차관입니다.

오늘 소위가 소집되고 진행되는 경과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너무 이렇게 국회 측과 충분한 상의도 없이, 특히 간사님이나 각 소위 위원님하고 상의도 없이 이렇게 진행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재부에서는 철저히 모든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다소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처리할 안건의 시급함을 감안해서 오늘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12668)
 2. 2025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9544)
 3.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12669)
- (14시32분)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까지 3건의 국가보증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1차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박성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말씀을 하실 게 있다고 그러시니까요.

일단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핵심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8페이지,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10조 원입니다. 10조 원이고,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10페이지, 공급망안정화기금에서 첨단산업 부문에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한데, 이 부분은 주로 반도체·2차 전지인데 대기업의 소재·부품 단순 구매비용으로 대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동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었고 그다음에 최근 국고채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승 우려가 있고, 13페이지 표에 보면 24년도·25년도 실적이 24년도는 8%, 25년도는 10월 말 기준으로 37.5%밖에 집행실적이 안 됐으니까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발행한도를…… 발행한도가 채권시장 물량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집행 시점에 맞게 한도를 감액하자는 취지의 검토의견이 나왔고요.

다음으로 24페이지, 25년도 및 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보증안은 25년도는 10조 원, 26년도는 15조 원으로 정부가 보증동의안을 제출했고요. 25년도는 이 기금이 12월 10일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물리적인 시간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필요 없는 걸로 합의를 하셨고 정부도 동의를 했습니다. 26년도 채권 15조 원에 대해서는 그 취지가 구체적인 보증동의안에 대한 근거 제시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차관님, 지난번에 1차 답변은 하셨어요. 그거 요약하시고 그 뒤에 또 진행 상황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일단 첨단산업기금의 25년도 동의안은 저희도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동의를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내년도에 있는 공급망기금하고 첨단산업기금의 동의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공급망하고 전략산업기금 간에 약간의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구분해서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과 수요에 대해서는 그때 공급망기금 할 때 수요가 얼마나 되냐인데 충분히 이미 10조보다 더 많이 초과해서 수요가 모여 있기 때문에 집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국고 시장 관련해서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금리 스탠스 전환기에 따른 현상이지만 내년 중에는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시장이 안정되고 또 저희가 노력도 같이 함으로써, 그리고 전체 물량이 800조 정도 되는데 이 25조를 연중으로 분산해서 할 수 있다면 시장 안정에 큰 어려움 없이 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더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지난번 소위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 발행규모의 적정성부터 해서 두 기금 간의 중복 문제 그리고 대기업 위주의, 적절한 지원인지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기재부 차원에서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 거시경제 지표와 관련해서 환율과 국채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찾아보니까요,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3.368%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달 반 새 60bp가 상승을 한 수치입니다. 아마 한국에서만 이례적으로 채권 금리 발작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MDD라고 맥시멈 드로다운(Maximum Drawdown)이라는 채권 최대손실률, 채권 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 충격 지수를 보니까 -6.8%로 2021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라든지—굉장히 우량기업이지요, AAA 신용등급인데—대기업들도 회사채 발행을 내년으로 미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5조의 국가보증동의 채권이 발행이 된다는 것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전문기관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연구기관들은 지금 정부가 발표한 물량 정도만 하더라도 10년 국고채 기준 최소 약 30bp의 추가 상승 압박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 충격이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국채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무위험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국고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나머지 회사채도 동일하게 쿠폰금리라든지 그리고 발행금리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신용스프레드 확대로 이어져서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들 자금조달비용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을 반드시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상 발행규모에 대해서 조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려하는 부분들을 부대의견으로 담아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아니면 수석전문위원, 부대의견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일단 부대의견은 저희가……

○박홍근 위원 이인선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인선 위원 제가 잠깐 말할까요?

○소위원장 정일영 예.

○이인선 위원 지난번 회의할 때는 제가 사고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고 조금 걱정이 돼서 물으니까 장학재단은 넘어갔고 두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했고. 제가 봐도 어쨌든 공급망하고 첨단기금 부분은 제가 산자 쪽이니까 조금 중복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협의했다면 여기에 반드시 수은하고 산은 간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조율할 때 중간중간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보고를 우리 위원장한테나 위원들한테는 해 주셔야 되지 이게 이렇게 가서 중복이 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야 이미 박성훈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잘하라 했으니까 발행하면서 미치는 영향을 봐 가면서 하시겠지요. 우리는 지금 레인지(range)만 주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안이니까.

○소위원장 정일영 부대의견 또 대안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일단은 저희가 한 가지는 마련을 했는데요. 두 번째는 이 밑에다가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발행 물량을 조정하라는 부분을 여기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소위원장 정일영 일단 이거 한번 읽으세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첫 번째 부분은 ‘기재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주된 용처를 첨단전략산업 부문 대기업의 단순 소재·부품 구매자금 대출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안보 품목 등의 확보·도입 및 이와 관련된 기술 개발·상용화를 위한 직·간접 투자, 시설 및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라는 부대의견이고요.

○소위원장 정일영 잠깐, 이거에 대해서는 박성훈 위원님, 어떻게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래도 의견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박홍근 위원 거기다가 더 추가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 듣고……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이거까지 일단 하고 여기에 추가로……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여기에다가 추가로 ‘채권발행 시에 국고채 시장의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행 물량을 조정한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런 식으로 그런 취지를 담으면 될 것 같아요?

○이인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왜 ‘수은, 산은 간의 조율 협의체를 원활하게 운영한다’ 이런 걸 넣으면 안 되나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면 그거는 또 별도 부대의견으로 ‘양 기금 간 중복이 없도록 수은, 산은 간의 협의체를 운영해서 중복 지원이 없도록 한다’ 이렇게……

○소위원장 정일영 그런 식으로 잘 협의해 나간다, 협의회를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겠지요?

차관님, 세 가지 부대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여기 전문위원 주신 문안 저대로 수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권시장 감안해서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는 시기가 있어야지 타이밍을 조절하기 때문에 시기를 넣어 주시면 저희는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세요.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하고 박홍근 위원님.

○**박홍근 위원**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특별한 의견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거의 심사가 끝났고요.

다시 한번 정부 측에 주의를 촉구하는데 다시는 오늘과 같은 소위 진행이 없도록 얘기 하시고요. 오늘 안건이 너무나 중요한 안건인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인데 이 채권 국가보증동의안을 쉽게 그냥 소위 소집하면 금방 처리되는, 통과의례적으로 생각을 하셨다면 그 생각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안건의 시급성 또 상임위가 현재 열리도록 의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다소 절차에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담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2항 2025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의결하지 아니하고 소위에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홍근 위원** 계류한다는 게 뭘 말이에요?

○**소위원장 정일영** 안 하는 겁니다. 25년도, 금년 지금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박홍근 위원** 예.

○**소위원장 정일영**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 위원(5인)

김태년 박성훈 박홍근 이인선 정일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형일

국제경제관리관 최지영

기획조정실장 황순관

경제공급망기획관 손웅기